

흔히 사팔눈이라고 하는 사시(斜視)는 대부분 4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치료를 끝내야한다. 사시 치료는 대부분 수술로 교정하지만 근시나 원시가 심해서 생기는 경우는 눈에 맞는 안경만 써도 치료가 되므로 부모의 관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斜視의 조기치료

흔히 사팔눈(사시)이라 하면 우선 미적인 면만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놀림감이 된다든가 또는 시집장가를 가는 나이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안과를 찾는 수가 많다. 그러나 사시가 되면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눈 위치의 이상 외에도 물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을 뿐 아니라 시력마저 약해진다. 사시는 대부분 어린이에게 많아서 약 5%나 차지하며 대부분은 4세 이전에 나타난다. 따라서 사시는 어린이의 눈병중에서 안경을 써야되는 굴절이상 다음가는 흔한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는 6세 이내에 두눈으로 물체를 하나로 봄으로써 입체시하게 되는 양안시기능(兩眼視機能)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시는 생후 6개월만 넘으면 발견되는 즉시 조기치료를 해야 된다. 자칫 부모들은 너무 어리다 하는 이유로 좀 자란 다음에 고쳐주려고 미루는 수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발견 즉시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결과는 좋다. 또 흔히 사시치료라고 하



李相旭
(서울강남병원 안센터 소장)

면 수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수술로 교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더러는 근시나 원시가 심해서 사시가 생기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안하고 눈에 맞는 안경만 써도 돌아간 눈이 바로 잡아지기도 한다. 또 돌아간 쪽 눈의 시력이 약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시치료의 최종 목적은 정상적인 양안시기능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시의 치료는 첫째는 눈의 위치를 똑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둘째는 좋은 시력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두 눈을 통해 물체를 하

나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돌아간 눈만 바로잡아 준다는 것은 치료의 3분의 1밖에 안되며 양안시기능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생긴다. 따라서 늦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사시의 치료를 끝내야 한다. 말을 아직 못하는 어린이의 눈 검사는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연령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완전한 치료를 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린이 눈에 수술이 웬말이냐는 완고한 집안 노인의 반대로 귀여운 자기 아이의 사시교정시기를 놓쳐버린 부모도 많다.

무엇이 과연 어린이를 위한 일이나고 반문하고 싶은 노여움마저 느낀다. 사시수술은 정밀을 요하는 수술이기는 하나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눈에 이상을 발견하면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시력측정과 검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 만 3세 정도에 눈에 이상이 의심되는 아이는 안과진찰을 꼭 받도록 권하고 싶다. 탄생 후 특히 한살 미만에서 안대를 오래 하면 그 눈의 시력의 발달이 저해되어 시력이 잘 안나오는 약시(弱時)가 되는 수도 있으므로 갓난아이에게는 불필요한 안대를 피하든가, 부득이한 경우라도 될 수 있는대로 그 기간을 짧게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57